함소아제약 통해 진안 생산 한약재 당귀 수매

진안군에서 생산한 우수 한약재를 1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수탁업체인 ㈜함소아제약을 통해 지역생산 한약재인 당귀를 수매했다.

이번 수매는 ㈜함소아제약에서 올해 5월 H-GMP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된 약초들을 수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진행됐다.

H-GMP 인증은 한약재에 대한 GMP 기준으로서 안전한 한약재를 한의원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안군에서는 지난 6월과 10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전북인삼농협, 약초 작목반 대표들과 함께 진안군 우수한약재 수매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관내 한약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진흥재단-경찰공제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과 경찰공제회(이사장 배용주)는 1일 태권도원 명인관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재단 오응환 이사장과 경찰공제회 배용주 이사장 등이 참석해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경찰 태권도 교육을 위한 지원, 경찰공제회 회원 및 가족 대상 태권도원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부량면 새마을 부녀회, 장학금 100만원 기부

김제시 부량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김광순)는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해 써달라며 지난 1일 부량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지평선 축제 음식부스 수익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지난 5월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노트북을 전달하였고, 그동안 불우이웃돕기, 사골곰탕지원, 복숭아 및 햅쌀 나눔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광순 회장은 "지난 5월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께 잘 전해져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 가을배추, 한솥도시락 김치 반찬에 사용

한솥, 신선한 국내산 김치 생산 위해 고창지역 배추농가와 계약

고창군의 고품질 가을배추가 국내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에 사용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일 고창군과 (주)한솥 측에 따르면 고창지역 배추농가와 계약해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솥도시락의 기본 반찬부터 김치찌개, 볶음김치, 김치볶음밥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고창 배추는 속이 꽉 차고 아삭한 맛으로 한솥의 김치를 한 층 업그레이드한다. 수확된 배추는 국내산 정제소금으로 절이고 씻은 후에 국내산 고춧가루는 물론 국내산 젓갈류, 양파, 무, 대파, 생강, 마늘과 함께 버무려져 월·수·금 주 3회 전국의 한솥 가맹점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그 양은 주 평균 7톤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한솥 마케팅본부장 김효신 이사는 "한솥의 김치에는 고객에게 더욱 건강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한솥의 마음과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를 사용함으로써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 대산면 일원은 가을배추의 주산지이다. 가을배추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출하된다. 특히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배추의 단맛과 고소함이 더욱 강해지고 조직도 단단해진다. 이 같은 특징 덕분에 고창배추로 김장을 담그면 양념에 절

여도 물러지지 않고 오래 저장할 수 있다.

고창 배추는 한솥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가 마련돼 농가에서도 판매 걱정 없이 품질 좋은 배추를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농가 스스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거나 불안정한 가격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생하면서 고창 배추의 브랜드 향상은 물론, 지역 배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품질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7회 정읍시 자원봉사자대회' 열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은성수)가 올 한 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자원봉사센터는 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원봉사에 헌신한 봉사자를 격려하고 사기진작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제17회 정읍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염영선 도의원, 정읍교육지원청 김미희 장학사 등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에 위로와 격려를 위한 표창 시상과 자원봉사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전라북도지사 표창 개인 8명, 단체 1개소를 비롯해 도의장 표창 2명, 시장 표창 4명, 시의장 표창 4명,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 2명, 교육장 표창 5명 등 총 36명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우수봉사단체 18개소를 선정해 시상하고, 봉사

활동 실적이 남다른 1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성수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들은 축제장과 행사에서는 안내자,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는 방역 지킴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때는 희망 나눔이 등의 역할로 우리 사회를 밝히는 정읍시의 보배"라며 "내년에도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경찰서,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키트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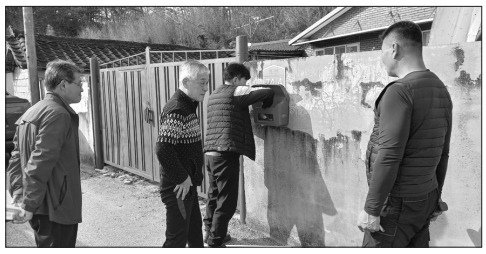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달 29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남원서 수사과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주 이사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달한 긴급구호 키트 20개(80만원 상당)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인해 경찰에서 제공하는 긴급피난처를 이용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긴급구호 키트에는 다수 의약품과 의류, 식품 등이 들어있는 생필품으로 구성하여 범죄 초기 피해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심 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지사면 주민자치위원회, 우편함 달아주기 추진

지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용래)가 방계마을, 안하마을 등 14개 마을에 '나눔 愛 함께하는 우편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민자치 위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 이틀에 걸쳐 지역봉사활동단체인 지사랑목공방회원들과 함께 귀농·귀촌 세대 및 우편함이 없어 불편함이 있는 지역주민 33세대를 선정하여 우편함 달아주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17개 마을로 이루어진 지사면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주택화재 시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한다고 전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에 설치한 소방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한다. 소화기의 내용연한은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며, 녹이 슬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또한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다면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와 작동여부 등을 확인해 화재 발생 시 미·오작동을 예방해야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